

동일역할 수행시 성(sex)에 따른 시간사용의 차이

- 남성과 여성, 싱글대디와 싱글맘을 중심으로 -

성 은 속(서울여자대학교 석사과정)

I. 연구배경

‘남성주부’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남성주부’를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등장하게 되었다. 실업으로 인해 주부의 역할을 하게 된 남성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집안일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자신의 주부인생을 책으로 발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2월 현재 가사와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은 15만1천명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남성 비경제활동 인구 517만명 중 2.92%가 남성주부인 셈이다.

남성주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증가와 더불어 효율적인 가정경제 및 가사와 육아를 위해 과감히 역할을 바꾼 남성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변화들은 남녀 모두 성역할의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가전제품 및 가정관련 서비스업의 발달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가족의 전통적인 역할분담이 용이해진 것도 이러한 변화들을 가속화시킨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남성주부임을 밝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을 향한 사회적 편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2002)에서 남성 가정주부들이 직장을 가진 남편들보다 82%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이웃의 놀림, 사회적 편견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성적 성역할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실업으로 성역할을 바꾸어 담당하는 남성 전업주부들의 경우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황임을 볼 때 노동의 성역할 분리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변화시켜 가야할 과제가 되고 있다(조성은 외

2인, 2006).

그렇다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들은 가정에서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으며, 실제로 가사에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남성들이 같은 조건의 여성들과 비교하여 가정 내에서 기대되는 역할들을 얼마만큼 수행하고 있는지 시간사용을 통해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한편, 이혼율의 증가, 성 개방 풍조에 따른 미혼모, 미혼부의 증가로 인해 싱글맘과 더불어 싱글대디가 사회문제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05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8.6%인 137만 가구가 한부모 가정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00년 7.9%였던 112만4천 가구에서 다소 늘어난 수치이다. 이 중에서 20.9%인 28만7천 가구가 싱글대디 가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큰 비율은 아니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싱글대디의 증가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경제력 및 지위 상승과 더불어 2005년 가족법 개정으로 이혼자들에게 면접교섭권이 제공되면서, 여성이 아이의 양육을 직접 맡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¹⁾ 또한, 성 개방 풍조로 혼전 성경험이 증가하면서 미혼출산 후 아이를 맡게 되는 미혼부들,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가사 및 자녀양육에 대한 남성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이혼 후에도 자녀양육을 맡게 되는 남성들이 싱글대디의 증가에 가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이 되면서 가족들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조영희, 2004). 싱글맘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반면, 싱글대디들은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한부모가족이라 할지라도 성별에 따라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싱글대디는 역할 및 관계 적응, 자녀양육, 심리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싱글맘에 비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한부모가정에 대한 연구 및 정책들은 ‘싱글맘’ 가정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싱글대디’ 가정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싱글맘과 비교하여 싱글대디의 24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차이와 특징들을 탐색하는 것은 싱글대디의 생활실태와 생활상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4년 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2차 분석하였으며, 남성주부 및 싱글대디에 대한 이해와 생활상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 KBS 생방송 세상의 중심 ‘엄마 없는 하늘 아래-부자가정이 늘고 있다.’ 2006/05/10

II. 이론적 배경

성(gender)에 관한 시간사용 연구는 경제/거래 관점(economic/bargaining perspective)과 상대적 자원이론(relative resources theory), 성역할 이데올로기(gender role ideology), 사회체계이론(social system ideology)로 설명할 수 있다.

III.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탐색해보았다.

- 1) 남성주부와 여성주부의 생활시간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2) 싱글대디와 싱글맘의 생활시간은 어떠한 차이와 특징을 보이는가?

IV. 연구방법

1. 개념 정의

1) 남성주부와 여성주부

‘주부’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이다. 주부는 국어사전에서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 꾸려가는 안주인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우리는 흔히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 등의 무급 보살핌노동을 전담하는 사람을 가정주부라고 칭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주부’의 개념에 근거해서 ‘남성주부’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가정 내에 머무르는 남성으로서 가정 내에 주부의 역할이 기대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여성주부’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가정 내에 머무르는 여성으로서 가정 내 주부의 역할이 기대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2) 싱글대디·싱글맘

최근에 TV나 영화 같은 대중매체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도 깨끗하게 삶을 살아가

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대한 표현으로 ‘싱글맘’, ‘싱글대디’라는 용어가 일반화되면서 일상 생활에서도 싱글맘, 싱글대디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싱글맘’, ‘싱글대디’는 결핍과 빈곤의 상징인 편견적인 단어로 받아들여졌던 편부, 편모가 대중매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세고 깨끗한 이미지 혹은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는 부 혹은 모의 이미지로 바뀌어 표현되면서 생겨난 사회적인 경향(trend)을 반영한 용어이다. 그러나 용어에 대한 명료한 정의 없이 단지 ‘혼자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나 남성’의 의미로만 통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혼모’와 ‘싱글맘’, ‘미혼부’와 ‘싱글대디’를 함께 혹은 분리해서 표현하는가 하면, ‘모자가정’과 ‘싱글맘’, ‘부자가정’과 ‘싱글대디’를 같은 용어로 사용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고정자(2004)²⁾가 정의한 한부모가족의 개념에 근거해서 ‘싱글대디’란 이혼, 사별, 유기, 미혼출산으로 인해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이라고 정의한다. ‘싱글맘’이란 이혼, 사별, 유기, 미혼출산으로 인해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라고 정의한다.

2. 통계분석방법

가정 내 주부역할이 기대되는 남성과 여성, 싱글대디와 싱글맘, 각각의 두 집단의 생활시간사용을 비교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주로 사용하였고, 두 집단간의 항목별 평균치 차이에 대한 유의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PC+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V. 연구결과

1. 남성주부와 여성주부의 생활시간 분석

남성주부와 여성주부의 생활시간구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주부가 여성주부보다 생리적시간과 사회문화적시간에서 각각 55분과 3시간 46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사노동시간에서는 55분 더 적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2) 고정자(2004)는 한부모가족이란 여성(남성)이 18세 미만(다만, 취학 후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생리적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문화적시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표 1> 남성주부와 여성주부의 생활시간 독립표본 T-검정

생활시간		N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생리적시간	남자	655	781.22	138.44	13.573	1675.924	0.000*
	여자	3905	725.93	123.62			
가사노동시간	남자	655	80.82	102.64	-84088	2463.325	0.000*
	여자	3905	362.03	156.51			
사회문화적시간	남자	655	577.96	154.76	51.959	9118	0.000*
	여자	3905	352.04	143.99			

* $p<0.001$

2. 싱글대디와 싱글맘의 생활시간 분석

싱글대디와 싱글맘의 생활시간구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리적시간과 수입노동시간에서는 별다른 시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싱글대디가 싱글맘보다 가사노동시간에서 2시간 26분 더 적은 시간을, 사회문화적시간에서는 1시간 41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사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p<0.001$).

<표 2> 싱글대디와 싱글맘의 생활시간 독립표본 T-검정

변 수		N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생리적시간	남자	26	742.69	143.24	-0.027	92.809	0.979
	여자	33	743.33	108.73			
수입노동시간	남자	26	306.53	229.44	1.064	116	0.290
	여자	33	261.66	225.86			
가사노동시간	남자	26	86.34	113.08	-5.787	114.773	0.000**
	여자	33	231.96	159.89			
사회문화적시간	남자	26	304.42	164.42	3.574	116	0.001*
	여자	33	203.03	143.39			

* $p<0.01$, ** $p<0.001$

VI. 결론 및 논의

남성주부와 여성주부의 생활시간사용에서 생리적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문화적시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주부가 여성주부에 비해 개인유지 시간과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고, 반면 가사노동시간에 해당되는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는 적었다. 이는 남성주부가 가정 내에서 기대되는 주부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싱글대디와 싱글맘의 생활시간사용에서 생리적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은 대체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사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싱글대디가 싱글맘에 비해 개인유지시간과 가사노동시간에 해당되는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가 좀더 짧게 나타났고, 반면 일과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은 더 길었다. 이는 싱글대디의 생활시간이 생계유지에 좀더 집중되어있으며, 싱글맘이 이중역할에 좀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싱글대디, 싱글맘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싱글대디 가정이 싱글맘의 가정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덜하다 할지라도, 이 두 가정 모두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저소득 싱글대디와 저소득 싱글맘 가정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부자복지법에 의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자격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가정이 많지 않고, 그 수준 또한 미흡하다. 이들 가정이 현실적인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정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며, 지원수준 향상 및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싱글대디와 싱글맘 가정의 생계와 가사 및 양육의 이중부담을 감소시키고 가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놀이방, 방과 후 프로그램, 가사지원서비스, 보호시설 등, 싱글대디와 싱글맘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셋째, 이들 가정은 한부모가정으로서의 현실 인식 및 적응, 가족관계의 재정립, 자녀양육 및 부모의 역할 등을 위한 종합적인 한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이들 스스로 정보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미약하므로 이러한 정보망들을 확충하여 싱글대디와 싱글맘 가족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이 실시한 생활시간조사는 기존의 조사에서 배우자 및 동거가족, 비경제활동조사자에 대한 정보, 심리적 요인 등이 포함된 좀더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정자. 2004. “한부모가정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277-302.
- 조성은 · 정지정 · 윤소영. 2006. “남성의 시장노동과 가사노동- 신문기사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129-140.
- 조영희. 2004. “한부모 가족 부·모의 생활시간 분석”. 『가정관리학회지』 22(1): 139-151
- 통계청. 2007년 2월 고용동향
-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2004년 생활시간조사
- Americaan Heart Association. 2002. “Non-traditional roles may boost risk of heart disease and death” American heart Association meeting report.